

달동네 손발되어 주민속으로

관악구의원 김혜경씨 의정 1백일

서울 관악구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인 김혜경(46·신림7동)씨는 매일 오전 10시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난곡주민회관으로 출근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회관 안으로 들어서면 으레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인사를 건네기가 무섭게 자신들의 민원사항을 쏟아놓는다.

“마을 주차장을 세워달라.”

“쓰레기 청소차가 오지 않는다.”

“수돗물이 끊겼다.”

이 지역이 소문난 달동네인 탓에 주민들의 하소연은 하루에도 수십가지에 이르

지만 당장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해당관청에 연락하고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안은 장기계획을 세워나간다.

“지난 시절 철

거시비로 구청을 찾을 때마다 간부들이 ‘몸싸움 잘하는 달동네 이준마’라면서 만나기조차 꺼려했으나 기초의원으로서 당선되고 나니 그래도 ‘의원’ 대접을 해주는지 간단한 민원은 즉석에서 해결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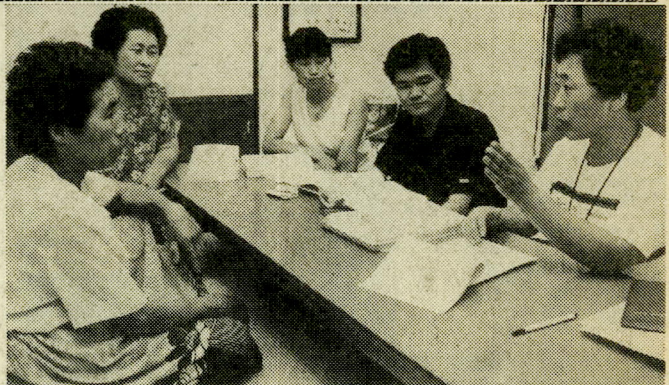
지난 3월26일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달동네 이준마에서 ‘구행정의 파수꾼’으로 뽑힌 김씨는 6일 의원생활 1백1일째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선거 당시 김씨는 선거비용으로 2백40여만원을 썼으며 이 가운데 “내가 낸 돈은 요구르트 1개 값 80원뿐”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만큼 성금과 자원봉사로 선거를 치러내 화제를 모았다.

‘달동네의 발’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활발한 주민활동을 벌여온 김씨는 의원으로 뽑히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지난 4월16일 구의회가 개원한 뒤 3차례에 걸친 7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관악구 28개동의 살림살이를 보고 받았고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공유재산처리 조례안 등 조례도 개정했다. 또 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도 가졌다.

그러나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은 호적을 제때 정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으로, 재정자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인 김혜경(오른쪽)씨가 6일 신림7동 난곡주민회관에서 마을주민들과 지역문제 등을 의논하고 있다.

〈유창하 기자〉

쏟아지는 민원에 종종걸음 전시행정·친여독주 아쉬움

극장까지 갖춘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려는 건 도무지 전시행정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김씨는 이 돈으로 재개발지역 10여개동에 소규모 독서시설을 설치,

더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구청에 요구할 작정이라고 했다.

또 지난 4월 2명의 결산감사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한자리를 보강해 달라는 야권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권의원들이 표결을 강행, 여권의원만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한 것을 보고 기성정기판의 ‘힘의 논리’가 구의회까지 지배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때마다 김씨는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구의회가 마음처럼 걷고 달릴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했다.

“모든 것을 주민들 속에서 생각하고 배우고 행동하자.”

김씨는 한명의 주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다.

〈정재권 기자〉

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별다른 이견없이 승인했지만 김씨로서는 못내 안타까웠다. 과태료징수 대상자 대부분이 생활에 쫓기고 조례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탓에 호적정리 시기를 놓친 영세민들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신의 집을 포함, 달동네 4천5백여세대의 재개발 문제.

김씨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재개발 공청회를 열었고 수시로 호별방문도 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입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

김씨는 재개발 문제에서 청소차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체는 주민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런 까닭에 김씨는 선거 직후 발기인

50명으로 주민자치조직인 ‘난곡주민회’ 결성을 주도했으며 지난 달 15일 회원들이 모금한 1천5백만원으로 회관 사무실을 마련했다. 현재 회원은 1백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달말께 주민회 발족식도 정식으로 가질 예정이다.

김씨는 그동안 회사원인 남편의 월급으로 월평균 15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충당해 왔으나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경비가 1백여만원으로 늘어나 이를 확보하기 위해 바자회, 농산물직판장 개설 등 수익사업과 후원회원 모집활동을 적극 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의 눈에 비친 구행정은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김씨에게 관악구가 생활수준이 높은 신림9동에 27억원을 들여 수영장·